

주가	환율	금리
+10.84 1,437.84 (코스피지수)	8.00 945.60원 (원/달러)	-0.06 4.9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701.85	(-0.99)
다우(18일)	11,268.77	(+194.99)
나스닥(18일)	2,356.14	(+44.98)
닛케이	17,350.12	(+117.26)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89엔	(-1.63)
유로 달러 환율	1.2344달러	(+0.73)
3년만기 회사채	5.24%	(-0.07)
콜금리	3.97%	(+0.01)

공정위장 “대기업 정책 내년 개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중에 추진할 대기업집단정책 개편과 관련, “빠르면 2008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점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내년에 개편을 추진할 대기업집단 정책의 시행시기에 대해 “내년 4월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문제가 있어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미련과 여론수렴 작업이 빨리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출총제를 당분간 갖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미련과 관련, “일본과 우리나라 재벌은 총수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어 일본은 참고사례로 보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있고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 총수들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출총제 대안이 마련되면 설득을 위해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부지의 사재출연과 관련,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내서 여론을 무마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론스타의 기부의사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앞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밀가루 값 담합업체 고발

대검찰청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값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6개 밀가루 제조 업체와 이를 회사 관계자 5명을 1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업체 대표 등 5명이다.

이해찬 총리와 함께 ‘3·1절 골프’ 과문에 훨씬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2000년 2월)이 담합 공소시효(3년)를 넘겨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년 동안 매월 1~2차례 영업일원, 영업부장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밀가루 공급물량과 원액 가공물량을 담합했고 2002년 2월에는 회사 대표자 회의까지 열어 업체별 배분비율을 결정했다.

제분업체들은 담합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경쟁사를 방문해 담합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을 20일께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5년간 1억이상 납세자 72,000명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사람은 7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9일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3.9%가 증가한 1천70만1천명으로 전국민의 약 33.3%에 달한다.

1천점 이상(납세액 약 1억원) 납세자는 7만2천명이며, 100점 이상~1천점 미만은 13만명에 달했다.

50만점 이상 납세자는 단 한명으로 포인트는 55만7천점, 납세액은 557억원에 달했으며, 30만점 이상 50만점 미만은 2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천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선 등기우편을 통해 포인트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진납세액 10만원당 1점을 주되 고지서를 받고 낸 세금에 대해선 0.3점을 주는 만큼 획득한 포인트로 납부세액을 일률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00점 이상자는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주 상권분석

충장 ‘원톱체제’ ‘다핵화’로 재편

1) 프롤로그

연재대상 상권=▲충장로·금남로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봉선지구 ▲진월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 ▲운암지구 ▲전대후문 ▲첨단구 ▲하남지구 ▲운남지구 <무순>

140만 인구의 광주지역 상권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1도심 체제인 ‘단핵화’에서 대단위 택지지구 중심의 ‘다핵화’로의 재편이다. 다핵화의 주 원인은 택지개발이지만 교통발달과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체 진출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핵화로 변모하고 있는 광주지역 상권을 대단위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13개 권역으로 나눠 각 상권별 특징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매주 목요일 한자례씩 연재한다.



80년대 택지개발→90년대 유통업체 진출 한몫

상무지구, 상업·주거복합 1부도심 상권으로 부상

◇대단위 택지조성, 대형 유통업체 진출이 상권 재편 주도=상권 다핵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집중이다. 10만㎡ 이상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1985년 염주지구를 처음으로 현재까지 23개 지구가 조성됐다. 86~87년 봉선·

면적이 광주 전체 면적(501.34㎢)의 3%(15.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위 택지지구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5년사이 광주 주택 증가분(7만7천383채)의 91.8%(7만1천73채)를 아파트가 차지하는 등 택지지구가 상권 형성의 중심에 서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형 유통업체의 광주 진출도 상권 재편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95년 광주신세계를 시작으로 98년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송원백화점 위탁경영) 등 백화점 ‘빅3’가 진출했다. 할인점도 95년 향토기업인 빅마트이어 98년 이마트, 2000년 롯데마트 등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재래시장 상권이 붕괴되는 대

한몫 하고 있다.

◇수원지구 등 신흥택지가 향후 변수=전문가들은 광주 상권의 다핵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140만명을 기점으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인구로 볼 때 다핵화되는 상권 수가 늘어나기 보다는 상권별 특성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8개 대단위 택지지구(총 인구 19만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2008년 완공되는 수완지구다. 2만5천가구에 8만명이 입주하는 수완지구는 단일 택지로는 광주에서 가장 큰데다 잘 갖춰진 교통망, 경제력을 갖춘 하남산단이 인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가짜상품 조심하세요” 관세청이 가짜상품의 수출입 균형과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서울 리조트호텔에서 개최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의 일

환으로 열린 가짜상품전시회에서 속기 쉬운 가짜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환율 950원 붕괴

8년 6개월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째 하락하며 8년반만에 950원선 아래로 내려섰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8.00원 급락한 945.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마감가격 기준으로 95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97년 10월 27일 939.90원 이후 8년6개월만에 처음이다. 4거래일간 하락폭은 16.70원에 달했다.

환율이 마감가격 기준으로 95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97년 10월 27일 939.90원 이후 8년6개월만에 처음이다. 4거래일간 하락폭은 16.70원에 달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10원 하락한 950.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잠시 951.00원으로 올랐으나 매물 유입으로 곧바로 95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역외세력 등의 매도 증가로 944.00원까지 급락한 환율은 저가매수로 낙폭을 일부 줄이며 945원선 위로 올랐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엔·달러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117엔 아래로 떨어지자 원·달러도 동반 하락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의사록 공개 후 금리인상 종결 전망이 확산되며 달러 매도세를 촉발했다. /연합뉴스

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 2조 투입

정부, 201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체기술 등 5개 에너지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을 투입한다.

19일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부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이용 수소제조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정부 차원의 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기부와 산업자원부, 농업진흥청 등 7개 정부 부처·기관이 ▲화석연료 대체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기술 ▲비이산화탄소 제어기술 등 모두 5개 부문 44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향후 5년간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과 수소연료 전지, 수화력, 석탄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과기부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따라 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에너지 기술개발을 분야별로 입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94년 효율성을 발생한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지난해 2월 16일 러시아의 비준서 기탁을 마지막으로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를 90년 수준보다 5%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럴당 두바이유 65달러

브렌트유 71달러 넘어

두바이유 가격이 처음으로 배럴당 65달러를 넘어서고 미국 서부텍사스증권(WTI)과 브렌트유가 71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5.50달러로 전날보다 0.79달러 올라 17일 기록한 64.71달러의 최고가를 하루만에 넘어섰다.

두바이유는 이로써 이달 들어서만 5거래일마다 사상 최고가를 갑자기였다.

WTI 현물가도 전날보다 배럴당 1.04달러 오른 71.33달러를 기록해 17일의 70.29달러에 이어 이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브렌트유 현물가도 배럴당 0.77달러 오른 71.37달러에 거래돼 사상 최고가를 이어갔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평균 62.70달러, WTI는 68.44달러에 달할 정도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선물 원유유가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